

'블루오션' 다도해 <37>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신안편-비금도



소금·시금치... 돈이 섬을 덮어 '飛金'도라 했다지

섬 주민들은 거센 바닷바람을 돌담으로 막았다. 비금도에서는 '골병초'로 불리는 시금치로도 유명한 내촌마을의 돌담은 3km 정도가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신안 비금도와 도초도는 신안군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신안군정이 있는 압해도에서 자은~압태~팔금~안좌 라인을 지나면 나타나는 비금도, 도초도를 거쳐 흑산도, 홍도를 가고, 그곳에서 다시 태도와 거제도, 만재도로 가는 것이다. 비금도와 도초도를 잇는 다리의 이름이 '서남문대교'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의 서남단에서 들어오는 첫 관문이라는 의미다. 연장 937m의 이 다리는 1996년 8월 준공됐으며, 이에 따라 비금도와 도초도는 하나로 뭉였다.

서남문대교로 인해 목포여객선터미널을 출발하거나 되돌아오는 여객선은 시간에 맞춰 비금도나 도초도 중 한 곳에만 정박하면 된다. 따라서 배편이 늘어나면서 물고기의 교통편의성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 흑산도를 출발한 여객선은 1시간 10여분 뒤 비금도에 도착했다. 비금도 선착장에는 김하나(·32·9급)씨와 비금도 출신 무기계약직 이원우(36)씨가 마중 나왔다. 김씨는 전남대를 졸업하고 서울로 거처를 옮겨가며 교육행정직을 준비한 '공시족'이었으나 결국 대학 졸업 7년 만에 고향인 신안군의 공무원이 됐다. 5명의 신입 신안군 공무원 가운데 유일한 여성으로, 첫 임지는 비금도로 배정됐다. 김씨는 "교통편이 좋은 곳을 배려해준 덕분에 비금도에 왔다"며 "나머지 남자 동기들은 흑산도, 하의도 등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비금도 본도는 당초 10여 개의 섬으로 돼 있었으나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방조제를 막아 지금의 모습을 갖췄으며, 지금도 배가 드나들던 구지(갯)가 남아 있다. 유인도 3곳과 무인도 79곳을 부속도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현재 1936가구에 3939명(남 2042명 여 1897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면적은 51.61㎢로, 단일 섬 면적으로는 신안군에서 5번째에 해당한다.

특산물로는 433ha의 염전에서 4만5000t(113억원)이 생산되는 천일염, 650ha의 밭에서 10kg짜리 34만 상자(115억원)가 생산되는 비금도 재래종 시금치인 비금섬초 등이 있다.

비금도의 대표적인 자원으로는 4km의 가는 모래 해변을 갖춘 비금명사십리,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진 하누넵 하트 해변, 이세돌 바둑기념관, 대동염전, 해풍으로부터 농작물과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돌담 '내월우실' 등이 있다.

김씨와 이씨의 안내로 이들 자원들을 하나씩 되짚어갔다. 비금도 곳곳에 보이는 밭에는 녹색의 풀들이 솟아나고 있었다. 대표 특산물인 시금치다. 소금과 함께 비금도의 대표자원인 시금치를 여기서는 '골병초'라고 부른다. 찬바

농사 끝나면 시금치 파종 '골병초' 국회의원·바둑기사 키운 염전 돌담 '내월우실' 바람 막아주고 하누넵 하트해변 관광객 맞아주네

람이 불면 자라고, 첫서리를 맞아야 재배하며, 쭈그리고 앉아 캐고 다듬기를 반복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찬물로 씻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그날 그날의 시세가 곧바로 생산자들에게 알려져 '값 더 받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민들은 새벽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섬 여인들은 논농사가 끝나면 곧 시금치 종자를 뿌리고 '겨울농사'에 나서 1년 내내 노동에 시달린다.

3km에 달하는 섬 특유의 돌담이 원형대로 보존돼 있는 내촌마을의 재래종 시금치가 유명하다. 내촌돌담은 과거 구불구불했으나 최근 관광자원으로 거듭나면서 가지런하게 정리됐다고 한다.

내촌마을을 지나면 '내월우실'을 볼 수 있다. 언덕배기에 자리한 높이 3m, 폭 1.5m의 연장 20m, 45m의 2개의 돌담이 교차하며 서 있는데, 바닷바람으로부터 언덕 아래의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옛 선인들의 지혜의 산물이다. 20년 전까지 '내월우실'은 길 한복판에 자리했으나 지난 1996년 비금도 일주도로가 생기면서 길 옆에 자리하게 됐다. 언덕을 넘어 일주도로를 타고 달리면 하누넵하트해변을 볼 수 있다. 하트 조형물 사이로 조금 각이 진 하트 모양의 해변이 나타났다. 노을이 맛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겨울 바람이 세 표지판이 휘어질 정도여서 매년 갈아줘야 할 정도라고 한다. 갈수록 모래가 유실되고 있어 해변의 풍경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고서리의 이미해수욕장, 선왕산(255m), 비금초교를 지

나는 길가에 유육우(1914~1984) 동상이 있다. 영화배우 유지태의 할아버지로 알려진 비금 출신 유육우씨는 대동염전을 만들어 밀천을 마련한 뒤 목포에서 전남상사를 건립, '부'를 일군 뒤 정계에 진출해 3·4·5·8·1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69년 신안군 창군에 공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도 비금도에 부자가 많다는 속설은 유육우씨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한 때 비금도에는 4개의 초등학교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비금초교와 동초교만 남아 있으며, 최근 학생 수는 각각 30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대동초교는 비금 출신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 기념관이 됐고, 서초교는 한 개인업자가 단장 공장으로 운영중이다.

이세돌기념관으로 가는 길에는 비금명사십리와 원평해수욕장이 있다. 길이 4km에 이르는 비금명사십리는 신안의 어느 해변보다도 넓고 긴 해변으로 유명하다. 자동차와 경운기가 다닐 만큼 가는 모래가 단단히 깔려 있다. 해변가에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었으며, 그 앞 자연골로 뒤덮인 바위 위에서는 인근 신월리에 사는 80대 할머니 2명이 굴을 캐고 있었다. 한사코 이름 밝히기를 마다한 이들 할머니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와서 굴 캐는 것이 더 낫다"며 "국도 해먹고, 젓도 담가먹는다"고 말했다.

비금도의 동쪽은 논농사, 서쪽은 염전을 주업으로 한다. 염전은 매년 4월 첫 생산에 들어가 10월 초순이면 1년 일이 마무리된다. 신안 염전 노예 문제로 한창 문제가 있었을 때 비금도는 잠잠했다. 비금도의 경우 대부분 가족이 자제 또는 임대 운영하는 형태로, 외지인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늦은 오후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던 이모(67)씨는 "소금 가격도 낮고, 일이 힘들어 젊은이들이 하기 어렵다"며 소금 수레를 옮겼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섬 사람들 사진 찍는 농부 이원우씨 "젊은이도 머무는 섬 돼야죠"

이원우(36·무기계약직)씨는 도초고로 통합된 옛 비금고를 졸업한 후 한 번도 섬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도와 주말이면 시금치 농사를 짓고,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하고 있는 농총각이다.

15마지기(1만8000평)의 농사일을 총괄하고 있는 그는 3형제 중 장남이다. 가끔 주말이면 목포에 나가는 것을 즐기고, 동네 청년들과 청정 바다에서 후리질로 잡은 생선 등에



술 한 잔 기울이며 스트레스를 푼다. "최근 그물을 양쪽에서 끌고 해변으로 나오는 손쉬운 방법으로 6kg짜리 민어, 새우, 꽃게 등을 가득 잡았다"며 웃어보였다.

그는 "비금도에서는 부지런하면 충분히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며 "최근 섬으로 들어오는 50~60대들이 늘고 있는데 젊은이들도 많이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금도가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하누넵하트해변. 외지인에게는 꽤 유명한 명소다.



바람을 막기 위해 옛 선인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내월우실'이 대표적인데, 교차해 돌담을 쌓아 언덕에서 마을로 부는 바람을 막았다.



비금도의 천재바둑기사 이세돌을 위해 옛 초등학교를 개조해 만든 이세돌기념관.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